

인도네시아 자바 사원 연구

A Study of Temple on Java Island

가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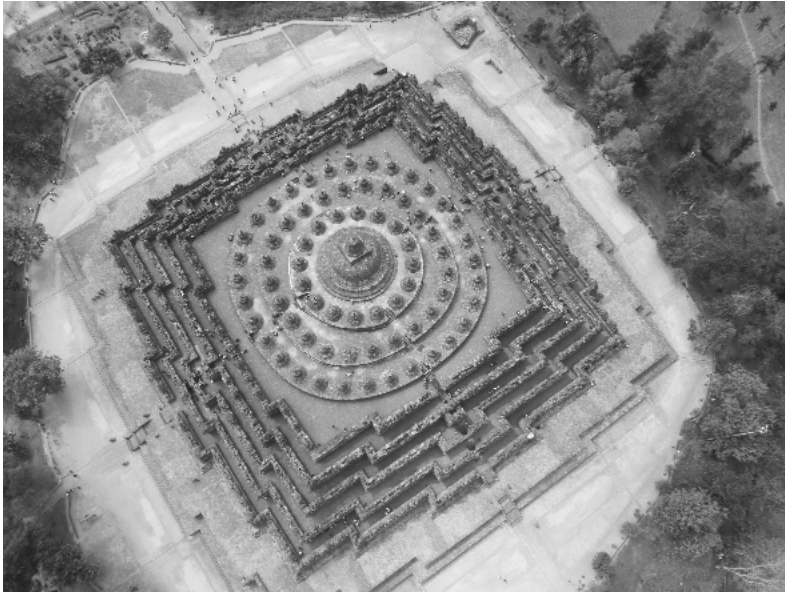
GA Jong Su

I. 힌두교와 불교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사원은 보로부두르와 찬디 로로 종그랑이다.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주변에 남아 있는 불교와 힌두교를 대표하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세계 최고·최대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힌두교 사원 찬디 로로 종그랑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자바 예술의 원류는 인도에서 기원하는 힌두교와 불교이다. 자바에 전래한 이들 2 종교는 때로는 서로 경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융합하여 인도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인 종교로 탈바꿈한다. 보로부두르 부조는 인도 불교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불탑을 공양하는 부조에는 브라만 승려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힌두교와 불교의 ‘자바화’라고 부르며, 힌두교와 불교는 1,000년 가까이 자바의 사회, 문화,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 Vice Dean, Faculty of Philology,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oantransp1@yahoo.com



<그림 1> 보로부두르



<그림 2> 찬디 로로 종그랑

힌두교는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발전한 것으로 인도의 모든 종교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경에 성립한 브라만교는 다신교이다. 브라만교는 대자연의 구성 요소나 여러 현상을 신격화해서 숭배한다. 주요한 신은 스리아(태양신), 인드라(뇌신), 아구니(화신)이다. 그 후에 힌두교가 체계화되고 나서 비슈누가 천상계에서

태양을 표상하는 신이 된다. 또 공계(空界)에는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시바 신이 되는 루드라(폭풍 신)가 있다.

이들 베다의 신들은 처음에는 서로 각각 찬양되어 서로 종교적인 연계를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신이 하나의 철학적 사상으로 통일하면서 신 바로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신을 제사 지내는 제례가 중요시된다. 그에 따라서 제례를 담당하는 사제(브라만 승)의 힘이 강해지고 결국은 브라만 승을 최상층 계급으로 하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성립한다. 그것은 카스트 상호 간에 명료한 신분 계층을 형성한 획일적인 사회였다.

기원 전후 브라만교에서 발전한 힌두교는 다신교였지만, 많은 신의 배후에는 유일신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잠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힌두교는 일신교적인 요소도 있다. 신들의 관계는 하나의 신이 다른 측면의 권현(權現)이며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많은 신이 구체적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관념은 절대 신이 우주에서 창조, 유지, 파괴의 3개로 통합되어 브라마, 비슈누, 시바가 탄생한다.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은 힌두교 문화의 큰 특징이다. 3대 신 가운데 비슈누와 시바가 신자를 획득하여 각각 최고신으로 숭배된다. 역사적으로 자바와 발리에서는 시바교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즉 인도네시아의 힌두교는 시바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슈누를 주신으로 하는 사원도 있다.

힌두교 사회에서는 생사의 무한한 반복은 세습하는 최상층 브라만이 설득하는 일종의 철학적 관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브라만 중심의 윤리관은 점차 붕괴하여 새로운 사상이 복잡한 양상으로 등장한다. 기원전 6세기에 브라만교 내부의 개혁파가 대두하여 탄생한 것이 불교이다.

불교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석가모니에서 출발한다. 그는 수행으로 정각자인 석가가 된다. 카스트를 부정하고 사람은 누구나 석가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져 수행에 따라서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다. 또 우주 만물의 존재를 다원적으로 보는 브라만교에 대하여 불교는 그것을 일원적으로 보고 모두 ‘인’과 ‘연’에 의하여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석가 입적 후 몇 세기가 지나면 불교는 아시아 전역에 전파한다. 그와 함께 불교의 원초적인 신앙 형태는 다양화하여 소승불교에서 ‘범불론적 세계관’을 사상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대두한다. 이러한 대승불교에 신비 사상이 도입되어 힌두교와 밀접한 밀교가 탄생한다.

자바를 비롯해 인도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처음으로 수용한 불교는 대승불교였다. 그 후 자바와 발리에서 불교는 힌두교와 융합하면서 독특한 민족 종교로 변신한다. 15세기가 되면서 자바는 이슬람교가 세력을 확장하고 16세기에는 자바의 힌두교 왕조 마자파히트 왕국이 패망하여 발리 섬으로 망명한다. 한편,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는 소승불교가 성행한다.



<그림 3> 불상(보로부두르)

아모가바주라(불공, 705~774년)가 718년에 자바를 순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원래 힌두교와 불교는 경쟁적인 관계였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불교와 신이 지배하는 세계를 신앙하는 힌두교에는 근본적인 성격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양자 간의 미묘한 교섭은 이미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힌두교의 신들은 자연신이다. 신이 자연과 인간을 지배한다는 신앙은 일찍부터 인도인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신들을

8세기 중엽 중부 자바에 돌연히 출현한 대승불교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보로부두르와 현재 남아 있는 불교 사원이 그것을 명료하게 입증하고 있다. 보로부두르는 이 유적의 건립자가 대승불교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당시 불교 중심지였던 인도 나란다에서는 탄트라파가 융성함에 따라서 자바 불교도 밀교가 성행하게 된다. 중국 문헌에도 밀교의 교조 바주라보디(금강지, 670~741년)와

부정하는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포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는 석가의 설법에 의해 힌두교 신들이 교화되어 불법을 수호한다고 설한다. 교묘하게 힌두교 신을 불교 수호신으로 바꿔 놓고 있다. 특히 밀교는 그 신앙 형태가 불교의 무신론적 성격을 배제하여 힌두교와 융합한다.

원래 대승불교는 그 독특한 관대함 때문에 다른 종교와 혼합하기 쉬운 측면이 있었다. 불교 신앙 안에 힌두교가 융합하는 한편, 힌두교도 석가를 비슈누의 화신으로 숭배한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불교는 힌두교와 통합하는 형태로 전개한다.

인도네시아에 전래 된 초기의 불교는 힌두교와의 융합(syncretism)이 현저하여, 사원과 종교 미술에서 이 2 종교를 이교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힌두교와 불교 사원 대부분이 물론 예외는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다. 중부 자바에 남아 있는 고대 사원 건축을 일반적으로 힌두교 사원과 불교 사원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와 힌두교라는 종교에 의한 분류법으로 양자의 건축은 매우 유사하다. 물론 자바 섬에서도 기반을 달리하는 힌두교와 불교의 ‘신상 불상’은 다르지만, 사원(Candi)의 건축 차이는 거의 없고, 인도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보로부두르는 인도 전래의 불교와 힌두교의 조형 건축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건축 공간을 하고 있다.

자바에 전래한 힌두교와 불교는 서로 공존 관계에 있었다. 힌두교와 불교는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민중에게 단일한 것으로 인도 문명의 2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자바인에게는 힌두교든 불교든 조상 전래의 토착 종교라는 기본 틀 안에서 하나의 신앙 형태로 수용한다. 이러한 자



<그림 4> 브라만 승의 불탑을 공양(보로부두르, 제1회랑 주벽 하층)

바 풍토에서 힌두교와 불교는 서로 융합하여 ‘자바화’가 진행된다. 힌두교와 불교를 서로 다른 종교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종교를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지배층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힌두교와 불교는 자바에서 공존하고 힌두·자바 예술을 낳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양자가 융합하는 현상은 점점 현저하게 나타난다. 동부 자바기가 되면 2 종교는 분별조차 곤란해져 결국 ‘시바 붓다’라고 하는 혼합 종교가 성행한다. 시바 신과 석가를 숭배하는 ‘자만 붓다’ 또는 ‘아가마 붓다’라고 하는 독특한 힌두교, 불교가 성립한다. 인도 문화를 수용했다는 의미로 ‘인도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자바 민족의 주체성이 점차 강해진다.

인도의 광대한 지역 안에는 문화, 언어, 종교 등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인도 여러 지역의 문화가 각각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파상적으로 자바에 전래한다. 종교 미술사와 비문 연구로부터 인도 남부의 팔라바 왕조, 출라 왕조, 동부의 팔라 왕조, 서부의 구자랏 왕조, 그리고 스리랑카 등이 자바 힌두교, 불교의 기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자바 초기 힌두교 사원은 6~7세기경 남인도 사원 형태와 유사하다.

자바에 여러 인도 왕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동시에 전래한다. 이러한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양식이 조화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재창조된다. 자바 문화의 재창조는 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힌두 자바기’의 건축이나 조각 등이 명확하게 인도 조형의 영향을 보이면서도 자바만의 특색과 아름다움이 있다.

인도 문화가 자바에 전래·수용하는 과정은 반드시 인도에서 일방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가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과 수혜로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인도의 여러 왕조도 동서 무역에서 자바 왕조와의 교류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또한, 많은 자바인이 바다를 건너 인도에 가서 인도 문화를 자바에 전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왕조는 상호 이익을 위해서 왕래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바는 인도 문화를 수용한다.

II. 서부 자바기

동남아시아 고대사의 중심 무대는 자바 섬이다. 인도 문명을 원천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고대 문화를 ‘힌두 자바 예술’(불교), 혹은 인도네시아 고대사를 ‘힌두 자바기’로 부르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힌두교와 자바’가 예부터 그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 상인이 자바를 왕래하면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자바 문화가 융성한다. 서부 자바의 가장 오래된 산스크리트어 비문이 자카르타, 반텐, 보고르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비문 중에 치아루톤 비문, 잠부 비문, 트구 비문에는 타르마누가라 왕국의 푸르나바르만이라는 왕국과 왕명이 기록되어 있다. 쿠본 코피 비문은 왕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라후미 글자체와 내용으로 보아 다른 3 비문과 유사점이 많아 이들 비문은 서로 관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치아루톤 비문은 보고르 북서 12km의 치아루톤 마을에 있다. 비문(지름 2m, 높이 160cm)은 흑갈색 화산암에 새겨져 있다. 비문은 4줄의 부라후미 문자 음각 문과 판독하기 어려운 한 줄의 문자, 음각한 사람 발자국, 알 수 없는 기호 2개가 새겨져 있다. 4줄의 문자는 ‘용감한 지상



<그림 5> 치아루톤 비문

의 수호자 푸르나바르만 타루마네가라 왕국 지배자의 비슈누와 같은 이의 양발'이라고 판독되고 있다. 이 4줄의 비문은 산스크리트어로 새겨져 있다.

비문에 등장하는 푸르나바르만(Purnavarman) 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료는 없다. 중국 사서에 동남아시아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5세기 이후이다. 『송서』 열전 권 57 각파파달국(閻婆婆達國) 조에 적혀 있는 사려파달도아라천마(師黎婆達陶阿羅踐摩)가 푸르나바르만 왕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그러나 『송서』이외의 외국 관련 기록에 동남아시아 제국의 왕명에 바르만(踐摩)가 따라붙는 것을 보면 이 푸르나바르만의 왕명도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푸르나바르만 왕은 비슈누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기록을 보면 왕이 힌두교를 신앙하고 있었던 것 같다. 자바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414년에 스리랑카에서 출발해서 중국에 돌아가는 도중에 야파제국(耶婆提國, 현재의 자바)에 당도한 법현(法顯)의 기록이다. 법현은 자바 섬에 대해서 '그 나라는 브라만교가 융성하다.'고 기록(『불국기』乃到一國名耶婆提其國外道婆羅門興盛(佛法不足言)하고 있어, 5세기 초기 자바에 인도 문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법현이 전하는 기록은 푸르나바르만의 비문 기록과 부합한다.

이 비문에 사용된 문자는 구란타 문자이다. 이 구란타 문자는 4세기 ~8세기 남인도 팔라바 왕조의 문자이다. 이들 자바 비문에 의해서 5세기에 힌두교가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바에서 5세기경의 사원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나라(589~618년)의 『수서』에 임읍(林邑), 파리(婆利) 등의 나라 이름과 '사람이 불법을 섬기고 브라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기록이 있다. 자바와 발리에 인도에서 내향한 브라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록이 전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적어도 7세기까지 계속된다. 자바 섬(야파: 곡물의 섬을 의미)은 말레이 반도의 여러 나라에 곡물(쌀)을 수출하여 인도와 중국의 산물을 수입하고 있었다.

인도에서 전래한 다양한 문화는 자바의 기층문화와 융합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7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번성한 종교 예술을 ‘힌두·자바 예술’이라 부른다. 힌두 자바 예술의 정확인 사원은 고대 자바어로 ‘찬디’(candi)라고 한다. 인도문화의 전래는 자바 섬보다는 수마트라 섬이 빠르고 중부보다 서부에서 먼저 시작한다. 하지만 수마트라와 서부 자바에는 중부 자바와 같이 화려한 사원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초기의 인도 문화 흔적은 서부 자바 이외에서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힌두·자바 문화’를 ‘서부 자바기’라고 부른다.

서부 자바에서 초기 사원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자바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바는 인도네시아 중남부의 대 순다열도에 속하는 섬으로 동서(동서 약 1,000km, 남북 약 200km)로 가늘고 긴 섬이다. 이러한 지형으로 말미암아 같은 자바 안에서도 서부와 중부·동부의 자연환경이 매우 다르다. 서부는 수마트라, 말레이반도, 칼리만탄과 같은 열대다우림 지대로 대부분 정글로 뒤덮여 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토지가 적다. 하지만 중부와 동부는 열대몬순 기후로 강과 화산이 많다. 화산재는 비옥한 토지를 제공하고, 화산구는 산 밑에 풍부한 물을 제공하여, 자바 중부와 동부는 예부터 많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자바 섬 동서의 척량산맥에는 약 120개의 화산(20개의 활화산)이 있다. 중부·동부 자바의 화산은 대부분이 2,000m 이상이다. 중부 자바의 산맥 중에는 반둥 고원, 카루 고원, 디엥 고원, 말랑 고원과 같은 많은 분지가 산재한다. 총적 평야는 주로 중앙 산지의 북쪽에 전개하고, 이들 화산을 끼고 치다룸 강, 치마누쿠 강, 톱 강, 솔로 강, 부란타스 강 등의 큰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부 자바의 솔로 강은 자바 섬 최대의 하천으로 그 유역은 동부 자바의 부란타스 유역과 함께 자바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서부 자바는 수전 경작을 하며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과 토지였다. 고대 서부 자바는 오래된 비문이 보고르를 중심으로 출토하는 것을 보면 물이 많은 고원 지대에 몇 개의 작은 수장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학이나 언어적으로 자바인은 순다인(서부), 자바인(중부·동부), 마두라인(마두라 섬)으로 분류한다. 자바의 선주민족은 순다인이다. 자바인(중부·동부)의 선조는 기원전 1500년

에 대륙에서 남하한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다. 그 후 기원전 5~6세기가 되면서 서(西)인도네시아어군의 집단이 도래한다. 해양 기술과 농업 기술이 능숙한 민족으로 인도네시아어파라고 한다. 이때 도래한 사람들은 자바에 정주하여 그들이 현재의 순다인과 자바인의 선조가 된다.



<그림 6> 찬디 창쿠앙

폭 4.5m, 높이 8.5m). 가루 왕국이 8세기 초에 세운 사원이다.

서부 자바의 순다인이 세운 수장국 중에 가루 왕국이 있었다. 풍부한 물과 고원지대라는 점은 보고르의 수장국 입지와 일치한다. 서부 자바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남기고 있는 사원이 찬디 창쿠앙이다. 반등 동남쪽에 가룟의 창쿠앙 호수 안에 사원이 있다. 1966년에 발견되어 기단만 남아 있었던 것을 1978년 인도네시아 고고학연구소에서 복원했다(기단 길이와

Ⅲ. 중부 자바기

8세기가 되면 폭발적인 종교 예술 활동이 중부 자바에서 시작된다. 이리하여 ‘힌두·자바 예술’ 전성기인 중부 자바기(7세기 후반~10세기 초)의 막이 오른다. 약 280년간 족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자바기의 역사는 남아 있는 사원과 유적과는 대조적으로 그다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자바 섬에서 7세기~15세기 비문이 1,000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러한 비문 연구로 5세기경부터 인도화한 몇 개의 수장국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즉 사일렌드라 왕국 이전부터 몇 개의 소왕국이 존재했다. 당

시 자바에는 ‘라마’라고 하는 장로가 운영하는 자립적인 공동체 ‘와메나’(마을)가 있었다. 이 와메나가 모여서 ‘라카’(수장국)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카는 세력 싸움을 통해서 강대한 연합 왕국을 건설한다. 몇 개의 지역에서 활거 하는 강력한 라카의 수장들은 힌두교와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을 강화해간다. 중부 자바의 사일렌드라 왕국과 마타람 왕국도 라카에서 출발한다.

당나라(618~907년)의 문헌 사료에 태종 정관 14년(640년)부터 현종 원화 13년(818년)까지 ‘각파(閣婆), 파릉(波陵), 가릉(訶陵)’이라는 나라가 10회 정도 조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가릉’은 중부 자바에 있었던 사일렌드라 왕조 혹은 마타람 왕조로 추정되고 있다.

중부 자바의 찬디 구농 우키르에서 732년 명이 있는 산스크리트어 비문이 발견되었다. 그 후 케두 분지에서 907년 명의 ‘카위어’(고대 자바어) 비문이 출토했다. 이 2 비문은 ‘산자나 및 산자야’라고 하는 부자를 시조라고 해서 시바교를 믿는 마타람 왕조(산자야 왕조)가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마타람 왕조 중심지는 케두 분지 안의 부미 마타람이다. 이 케두 분지에는 옥토가 많아 예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다.

비문은 산자야 왕(732~760년), 라카이 파낭카란 왕(760~780년), 라카이 파농갈란 왕(780~800년), 라카이 와락 왕(800~819년), 라카이 가릉 왕(819~838년), 라카이 피카탄 왕(838~?), 라카이 카유왕이 왕(863?~882년), 라카이 와투후마라 왕(882~?), 라카이 와투쿠라 바리통 왕(?~910년) 등 9대째 왕명을 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비문을 종합하면 717년에 산자야 왕이 마타람 왕국을 건국한 것이 된다. 마타람 왕국을 창건한 산자야 왕은 시바 신을 최고신으로 하여 많은 사원을 건립하고 8세기 중반에 서거한다. 그 후 라카이 피카탄 왕 시대에 마타람 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10세기 초에 멸망한다. 그러나 16세기에 또다시 이슬람 왕조인 마타람 왕조가 등장한다. 그 때문에 8세기 마타람 왕국을 고 마타람 왕국이라고 불러 16세기 이후의 신 마타람 왕국과 구별하여 부른다.

중부 자바에 많은 불교 사원을 건립한 것은 사일렌드라 왕조이다. 사일렌드라의 Saila는 ‘산’, Indra는 ‘왕’이라는 의미이다. 사일렌드라는 ‘산의 왕’이라는 뜻이다. 사일렌드라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

은 찬디 카라산에서 출토한 778년의 비문이다. 찬디 카라산 가까운 쿠루라크에서 782년의 비문이 출토했다. 이들 2 비문은 8세기 후반에 사일렌드라 왕조가 중부 자바를 지배했던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림 7> 찬디 카라산



<그림 8> 비슈누(찬디 바논)

또 다른 비문에는 사일렌드라 왕국이 탄생한 것은 742년이라는 기록이 있다. 비문을 통해서 마타람 왕국이 성립한 이후에 프람바난을 중심으로 사일렌드라 왕국이 성립한 것을 알 수 있다.

중부 자바기의 비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기까지는 산자하 및 산자야 부자에 의해서 시바교를 신앙하는 마타람 왕조가 케두 분지를 중심으로 나라를 건국했다. 마타람 왕조가 발상지인 케두에 조영한 시바교의 중심적 사원이 찬디 바논이다. 찬디 바논 건립 시기는 770~

780년경, 즉 마타람 왕조 제2대 왕 라카이 파낭구카란(760~780년) 때로 추정되고 있다.

마타람 왕조는 케두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중부 자바 북쪽의 디엥이나 운가란의 산간부에 7세기 후반부터 힌두교 사원을 조영한다. 이러한 사원을 북방형 찬디라고 한다. 또한, 마타람 왕조는 남부의 프람바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 카라산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비문에는 마타람 왕조 제2대 왕 파낭구카란의 이름이 보인다.



<그림 9> 북방형 찬디(그동 송고 3군)

한편, 마타람 왕국 성립 이후에 등장한 사일렌드라 왕국은 불교를 국교로 해서 단숨에 세력을 확장하여 힌두교 왕국 마타람을 지배한다. 더욱이 참파(베트남), 크메르(캄보디아)를 공격하여 동남아시아의 해양 무역을 장악한다.

중부 자바에서 융성했던(752년 푸룬푼간 비문) 대승불교의 사일렌드라 왕조는 인도의 팔라 왕조 문화를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중부 자바의 프람바난에 정착하며 세력을 키워간다(778년 카라산 비문, 778년 라투 보코 비문, 782년 쿠루라크 비문). 찬디 카라산, 찬디 세우, 찬디 사리, 찬디 푸라오산 등의 많은 불교 사원을 프람바난 평야에 건립한다. 그와 동시에 북상해서 케두 분지에 진출하여 찬디 바논 가까운 곳에 찬디 므똏, 찬디 누가웬을 조영한다. 그 후 사일렌드라 왕국은 농업과 향

상무역을 통하여 대제국이 된다. 사일렌드라 왕조는 그 세력이 더욱 융성함에 따라서 찬디 문dots을 증축하고 케두 분지 한복판에 보로부두르를 건립한다. 케두 분지의 불교 사원은 사일렌드라 왕조가 일부러 마카람 왕조 본거지 가까운 곳에 세운 과시용의 기념물(영묘)이다.



<그림 10> 라투 보코



<그림 11> 찬디 누가웬

케두에 세력을 굳힌 사일렌드라 왕조는 보로부두르 착공한 후에도 프람바난 평야 지대에 찬디 푸라오산, 찬디 카라산, 찬디 세우의 증축

(792년) 등 불교 사원 조영에 주력했다. 하지만 사일렌드라 왕조는 마타람 왕조의 본거지로 여겨지는 케두 분지 북쪽 지방에는 진출하지 않는다. 한편, 마타람 왕조는 케두 분지에서 사일렌드라 왕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불교 세력에 밀려서 주로 케두 북쪽 지역의 통치에 집중한다. 케두에 남겨진 찬디 바논과 찬디 구농 우키르는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그 후 폐사되어 소멸한다.



<그림 12> 찬디 세우

비문 연구로 당시 사일렌드라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다. 752~775년의 바누 왕, 775~782년의 비슈누 왕(다루마통가 왕), 782~812년(824년 비문)의 인드라 왕(상라마난자야 왕), 812~832년(824년 비문)의 사마라통가 왕, 835~856년의 발라푸트라 데와 왕, 856년의 푸라모다바루다니 여왕 등 6명이다.

영토 확장을 열심히 했던 인드라 왕은 말라카 해협을 지배하에 둔다. 사마라통가 왕자를 스리위자야 왕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시켜서 왕권을 강화한다. 사마라통가 왕은 인드라 왕의 후계자로 그의 치세에 보로부두르 조영이 시작된다. 사마라통가 왕은 보로부두르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그의 후계자로 발라푸트라 데와 왕이 즉위한다. 그 후 발라푸트라 데와 왕은 누나인 푸라모다바루다니 여왕과 권력 싸움에 패하여 폐위되어 외가인 스리위자야 왕국으로 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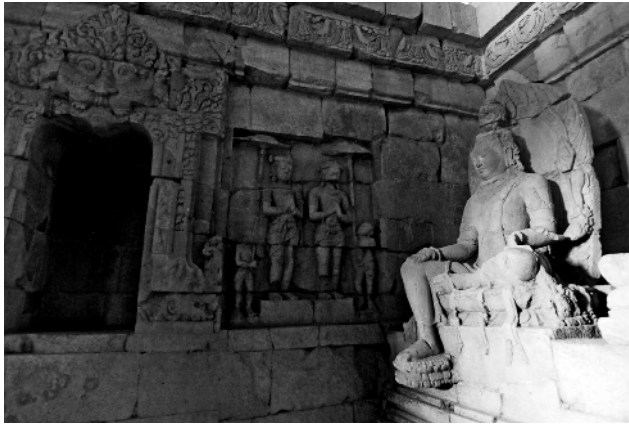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도 ‘사일렌드라 왕조를 세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다. 8세기 당시 자바에는 힌두교가 일반적이었고 중부 자바에는 수장국(라카)이 연합하여 세운 마타람 왕국이 성립해 있었다. 그러나 사일렌드라 왕국은 대승불교를 믿었다. 마타람 왕국은 가까운 곳에 이교도 세력이 결집하여 세운 사일렌드라 왕국의 탄생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던 것일까? 한나라 지배하에 고구려 건국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일렌드라 왕조는 수마트라의 쉬리위자야 왕국(대승불교) 출신 설이 유력했다. 즉 사일렌드라 왕국은 쉬리위자야 왕족이 건국한 나라로 추정됐다. 그러나 그 후 사일렌드라 왕국이 쉬리위자야 왕국을 침략한 것을 보면 양 왕조 간의 혈연관계는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가설은 캄보디아의 ‘부남국’(扶南國) 유래설이다. 부남은 사일렌드라와 같이 ‘산의 왕’을 의미한다. 또한, 부남국은 대승불교를 믿었다. 6세기 후반에 힌두교를 믿는 크메르인의 침략으로 7세기 전반에 부남국은 멸망한다. 그 부남국의 후예들이 바다를 건너 중부 자바에 정착하여 해상 무역을 통해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이 이 가설의 근거가 된다. 그 후 사일렌드라 왕국은 크메르 왕국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지배한다. 이것 또한 부남국 시대의 원한 관계로 해석하는 연구자가 많다.

사일렌드라 왕조와 크메르 왕조는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크메르 왕국의 왕자들이 유년기를 사일렌드라 왕국에서 성장했다. 770년에 자바에서 귀국한 자야바르만 2세는 앙코르 왕조를 건설한다. 또 1명이 자야바르만 7세이다. 1199년에는 참파를 멸망시켜 앙코르 왕조 최성기를 만든 국왕이 자야바르만 7세이다. 자야바르만 7세도 자바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찬디 푸라오산의 주실 안에 크메르 왕족으로 보이는 부조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일렌드라 왕국과 크메르 왕국의 관계는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림 13> 찬디 푸라오산



<그림 14> 찬디 푸라오산 로르(남쪽 사당 내부)



<그림 15>
크메르 왕조의 사신으로 보이는
인물상
(찬디 푸라오산 로르, 남쪽 사당)

한편, 9세기 중반이 되면 마타람 왕조의 라카이 피카탄 왕과 사일렌드라 왕조의 푸라모다바루다니 공주가 결혼하여 사실상 사일렌드라 왕국은 마타람 왕국에 합병 당한다. 이러한 왕권 교체에 의한 변화는 사일렌드라 왕국의 본거지인 프람바난 일대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불교 사원인 찬디 푸라오산, 찬디 카라산, 찬디 세우의 인근에 대규모 힌두교 사원 찬디 로로 종그랑이 출현한다(856년 이후). 이제까지 라카이 피카탄 왕은 간접적으로 사일렌드라 왕가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후 부인을 대신하여 권력을 잡으면서 그는 마타람 왕국을 부활시킨다. 사일렌드라 왕국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한 라카이 피카탄 왕은 그 권위를 과시하듯이 프람바난에 찬디 로로 종그랑을 건설한다. 이후 자바 왕조는 힌두교가 중심이 되고 불교 왕조는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세계사에도 유례를 볼 수 없는 석조 대 사원을 건립한 조영 에너지가 10세기 초기 갑자기 소멸해 가는 것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다. 1966년 삼비사리의 지하 5m에서 화산재에 묻힌 사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중부 자바 사원 건립의 쇠퇴 혹은 소멸은 화산 폭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찬디 로로 종그랑을 완성한 다쿠사 왕 이후 정권이 단명으로 끝난다. 마타람 왕조 라카이 와와 왕은 업푸 신독을 보좌역에 앉혀서 화산 폭발에 의한 위난을 수습한다. 하지만 라카이 와



<그림 16> 찬디 삼비사리

와 왕 사후에 왕위에 오른 신독은 스리위자야 왕국의 침략을 대비하여 수도를 동부 자바로 옮겨 무당 카무란 왕국을 건국한다. 이렇게 마타람 왕국은 중부 자바에서 막을 내린다.

IV. 동부 자바기

마타람 왕국 사람들을 자바 족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중부 자바를 버리고 동부로 이주한다. 중부 자바기의 종말에 이어지는 신독 왕 재위기인 10세기 전반부터 약 600년(929~1530년)간을 동부 자바기라고 부른다. 자바 역사 흐름에 따라서 동부 자바기는 ①10세기 신독 왕 재위기(929~948년)부터 1042년까지의 무당 카무란 왕조기, ②1042년부터 1222년의 크디리 왕조기, ③1222년에서 1292년까지가 싱고사리 왕조기, ④13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기까지를 마자파힛 왕조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대를 동부 자바기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지역적으로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무당 카무란, 크디리, 싱고사리, 마자파힛의 4 왕조가 흥망성쇠를 했는데, 이들 왕국은 동부 자바를 벗어난 넓은 지역까지 지배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발리 섬의 왕조가 동부 자바 왕조들



<그림 17> 찬디 파나타란

과 밀접한 교류를 하면서 힌두교 문화를 형성해 간다. 특히 마자파힛 왕조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영토 전역을 지배하는 대 제국을 건설한다. 하지만 중부 자바기에서 볼 수 있었던 폭발적인 사원 조영 활동은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동부 자바기의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 무대는 부란타스 강 유역 일대였다. 동부 자바의 마하메루로 여기는 폐낭공간 산을 비롯한 화산이 있고, 이들 성산은 신들의 보금자리로 많은 사원 유적이 남아 있다. 부란타스 강 흐름에 따라서 동부 자바기의 수도였던 싱고사리, 크디리, 마자파힛, 와탕 마스가 있다. 부란타스 강과 신들의 보금자리가 어우러진 곳에서 자바 예술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정치의 중심이 동부 자바에 이동한 것은 자연의 뜻하지 않은 재해와 외부 침략의 대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문화와 예술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진행했다. 다시 말해 동부 자바의 인도 문화 영향은 중부에서 동부로 정치적인 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말랑 서북의 디노요에서 출토한 760년 비문은 중부 자바 왕조가 동부 자바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알려준다. 중부 자바 사원 양식이 동부 자바의 여기저기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문화의 전파가 서서히 진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부 자바기 600년간 인도네시아 문화 예술은 그 이전과 현저하게 다른 양상으로 변화해 간다. 중부 자바기의 사원과 조각은 인도 조형을



<그림 18> 아르주나 비바하(찬디 수라우노)

강하게 반영한 것이지만, 동부 자바기가 되면서 자바 고유문화가 부활한다. 자바 동부 내륙 지방이 정치·문화의 중심이 되면서 자바 독자색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신들에게 봉헌하는 비문을 산스크리트어에서 자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인도 서사시 라마야나 이야기는 찬디 로로 종그랑의 찬디 시바와 찬디 브라마 회랑에 부조되어 있다. 이들 회랑에 새겨진 부조는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자바인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인도의 서사시가 고대 자바어로 번역된다. 이러한 번역은 동부 자바기가 되면 인도의 원전에 따르지 않고 새롭게 자바 이야기로 각색된다. 예를 들면 인도의 풍경이 자바의 풍경으로, 혹은 라마야나의 라마와 시타, 마왕 라바나 등은 인도인이 아니라 자바인으로 탈바꿈한다.



<그림 19> 수다마라 이야기(찬디 티고완기)

이러한 인도 문학은 힌두교를 학습하는데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자바어로 번역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이야기 배경, 인물은 물론 내용까지 완전히 자바 풍으로 모습을 바꾼다. 인도의 이야기가 자바 이야기로 바뀌면서 자바인이 이러한 작품에 열광하게 된다. 인도의 서사시는 그 후 동부 자바 왕조의 문학, 연극, 무용을 주제로 인기를 끌면서 사원을 장식하는 부조로 새겨진다.

외양 극에 사용하는 가죽제 꼭두각시 인형은 매우 독특한 형태로 양식화한 것이다. 동부 자바기의 사원을 장식하는 부조는 완전히 ‘자바화한 표현’(외양 양식)이 되고 있다. 인도 원작의 신화를 주제로 하고 있지

만, 등장인물은 독특한 와양 양식에 따라 새겨졌다. 동부 자바기의 찬디



<그림 20> 와양 극



<그림 21> 랑카 성에 불을 지르는 하누만(찬디 파나타란 라마야나 이야기)

파나타란 주당 기단을 장식한 라마야나 부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같은 라마야나를 주제로 하는 찬디 로로 종그랑 부조와 비교하면 자바 예술의 전기와 후기의 양식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고유문화의 재창조야말로 동부 자바기 문화예술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동부 자바 문화와 예술은 인도의 영향에서 일탈한다. 그와 더불어 건축과 조각에서도 인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바 고유문화를 부활시킨다.

중부 자바기 조형은 기념비적인 역동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동부 자바기 조형은 민예(民藝)적인 친근감이 있다. 박장식 교수(2012)가 동남아시아 예술에서 지적하듯이 동부 자바기의 예술 자체도 민예와 공예를 확연히 구분할 수 없다.

15세기가 되면 이슬람교가 자바 섬에서 세력을 확장하는데, 한편

오지의 산악 지대에서는 선사시대 기층문화가 힌두교와 융합하여 매우 특이한 사원이 세워진다. 예를 들면 중부 자바의 찬디 수쿠와 찬디 체토와 같이 산 사면에 계단식으로 사역을 조성하여 가장 높은 곳에 석재로 피라미드 신전을 만들었다. 자바의 선사시대의 피라미드 신전 유적과 사원(보로부두르 등)은 크메르 왕조의 피라미드형 사원(바쿱, 프놈 바켅, 박세이 참끄롱, 뿌라삿 톰 등)은 인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산악 신앙, 조상숭배, 성기숭배, 성수숭배가 결합한 동남아시아 토착 문화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



<그림 22> 찬디 수쿠



<그림 23> 찬디 체토

15세기 이후 자바 섬은 이슬람교가 성행한다. 라우 산의 피라미드 신전 유적은 힌두교 문화가 쇠퇴하는 것에 비례해서 고유문화가 다시 소생하는 동부 자바기 말기의 ‘힌두·자바 사원’ 종말기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자바의 힌두교와 불교는 16세기 발리에서 또 다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Bibliography

- 고정은. 2011.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의 미술을 찾아서. 『수완나부미』 제3권 제2호: pp.143-152. 부산: 동남아지역원.
- 박장식 외. 2012. 『좁은동남아시아 I』 서울: 솔과학.
- 가중수. 2012. 『자바의 사원과 유적』 서울: 주류성출판사.
- _____. 2013. 『보로부두르-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 서울: 북코리아.

Received: Oct. 2, 2013; Reviewed: Nov. 04, 2013; Accepted: Dec. 05, 2013

<Abstract>

A Study of the Temples on Java Island

Jongsoo Ka
Shujitsu University, Japan

The place where models of Indonesian temples and sculpture remain in best condition is in central Java. Central Java was a center of culture from the 8th century to the 9th century. After the mid-10th century, a dynasty moved from central Java to eastern Java, because of frequent volcanic explosions and illness. Eastern Java became the center of politics and culture until the 16th century, when Islamic culture gained superiority. The classical temples of Indonesia before the rise of Islam are called 'Candi', which we can divide into the western Java period (?~8th century), the central Java period (8th~10th century), the eastern Java period (10th~16th century).

Key words : Indonesia, Java Island, Buddhism and Hinduism Temples